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230호 | 2016년 11월 21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성호 | www.nars.go.kr

2016 미국 대선 결과와 정치적 시사점

이 정 진*

1. 들어가며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선 결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5대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가진 주류 정치인과 부동산 재벌 출신의 비주류 정치인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으며, 주류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다수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 후보는 경합주(swing state)를 비롯하여 미국 중서부 지역을 석권하면서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보호무역정책, 고립주의 외교정책, 반이민정책을 통해 침체에 빠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강대국 미국을 부활시키겠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제침체로 인해 좌절된 중하층 백인 남성들의 지지를 받아 대선

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공화당의 대선 캠페인은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화당은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상원 의원선거와 하원의원선거에서도 승리함으로써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차지한 명실상부한 집권당이 되었다.

2. 대선결과 분석

트럼프 후보는 아직 개표가 진행중인 미시건(Michigan) 주를 제외하고도 총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하에서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특성과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2016 미국 대선 결과(2016.11.15. 기준)

후보자	정당	득표율	선거인단수	당선여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공화당	47.2%	290	당선확정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민주당	47.9%	232	

주: 미시건(Michigan) 주의 경우 16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으나 개표가 진행중이어서 선거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음

(1)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의 특징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유권자가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선거인단은 총 538명으로, 각 주의 상원과 하원의원 수를 합한 수에 워싱턴 D.C에 3인을 더한 숫자이다.¹⁾ 선거인단은 주별로 선출되는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해당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 전부를 획득하는 승자독식 방식이다.²⁾

11월 8일에 실시된 선거는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 전체 득표율에서 앞서더라도 선거인단 수에서 뒤질 경우 패배하게 된다. 이번 대선은 경우에도 클린턴 후보가 전체 득표율에서는 47.9%로 47.2%를 득표한 트럼프에게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뒤지면서 패배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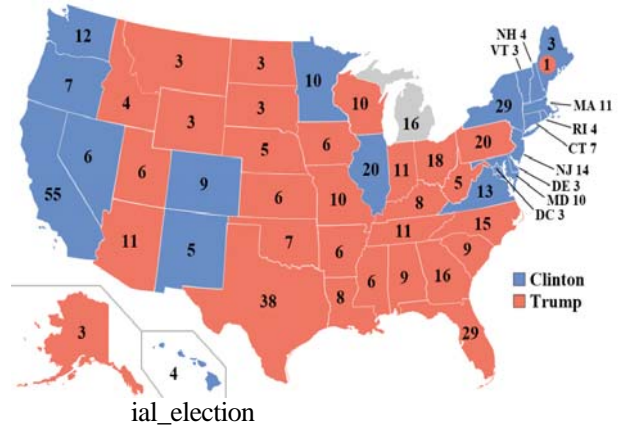
따라서 후보들은 보다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 경합주에 주력하게 된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경향이 뚜렷한 주들

- 1) 대통령선거인단은 연방 상원의원 정수(100명)와 하원의원 정수(435명)를 더한 수에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3인을 추가하여 총 538명으로 구성된 대(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1항).
- 2) 예외적으로 메인(Maine)주와 네브라스카(Nebraska)주는 상원의원 수에 해당하는 두 명의 선거인단은 주 전체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배정되며, 나머지 선거인단은 하원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에게 배정된다.
- 3) 이러한 선거제도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되었다. 하지만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득표를 하고도 선거에서 지는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선거제도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고정되어 있다시피 한 상황에서 누가 더 많은 경합주에서 승리하는가로 선거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림 1] 양당이 확보한 주별 선거인단수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president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노스 캐롤라이나 등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2) 트럼프 당선 배경

트럼프는 국정 경험이 없는 백만장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기반이 거의 없는 아웃사이드이다. 그러한 트럼프가 경선과정에서 잭 부시(Jeb Bush) 등 준비된 후보들을 꺾고 공화당의 대선후보가 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대선에서 공화당의 패배를 예견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주류 정치인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소위 러스트 벨트(rust belt)⁴⁾

- 4) 금속이 부식되어 녹슨 것을 의미하는 러스트(rust)와 지대(belt)를 합성한 말로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등 미국 중서부의 쇠락한 제조업 지대를 일컫는 말이다.

지역의 중산층 이하 백인 노동자층의 분노와 좌절이 표로 연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미국의 경제침체와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FTA 등 자유무역협정과 히스패닉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믿는다.⁵⁾ 이들에게 반이민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는 합리적인 선택지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둘째, 주류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반발이 트럼프라는 아웃사이드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다수의 유권자들은 클린턴으로 대표되는 주류 정치인들을 위선자이자 거짓말쟁이라고 보고 있다. 주류 정치에 대한 반발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샌더스 후보 열풍은 트럼프의 당선과 흐름을 같이한다. 샌더스나 트럼프를 통해 기존의 정치 흐름과는 다른 변화를 바란 것이다.

셋째, 보수성향의 백인표가 결집한 것에 반해 흑인표는 감소했으며 히스패닉 유권자도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의 경우 히스패닉 유권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클린턴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실제 선거결과를 보면 히스패닉 유권자의 29%가 트럼프를 지지했으며, 플로리다, 아리조나 등 경합주의 경우 히스패닉 유권자의 35%가 트럼프를 지지했다.⁶⁾

끝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에서 트럼프가 앞섰다는 점이다. 2008년 대선 이

후 미국 선거에서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⁷⁾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는 주류 언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들과 소통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었다.

3. 대선 이후의 정치상황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사회는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반 트럼프 시위가 뉴욕을 비롯하여 캘리포니아까지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혐오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비하적 발언, 여성 비하 발언 등을 거침없이 쏟아내었던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종이나 성별, 종교적 차이에 대한 관용 대신 차별과 공격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선거결과는 트럼프를 지지한 유권자들과 클린턴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인종적, 지역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에 따르면 고졸 이하 백인의 67%가 트럼프를 지지한 반면, 흑인 유권자의 88%는 클린턴을 지지했다.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트럼프 지지율(62%)이 높았던 반면 대도시에서는 클린턴 지지율(59%)이 높았다.

사회적 갈등은 트럼프 후보가 대선 기간에 주장했던 반이민 정책이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7)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유권자 개인의 특성에 맞춘 '마이크로 타겟팅' 전략에서 찾기도 한다.

5) 안병진,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건국 이후 첫 주류교체와 미국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6, pp.54-56.

6) <http://edition.cnn.election/results/exit-polls/national/president>.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책적 차별성보다는 이메일 스캔들이나 성추행 논란 등 후보자의 자질 관련 논란에 치중했다. 하지만 경제·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며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주장한 민주당⁸⁾이 패배하고 시장의 질서를 강조하며 세울 인허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집권으로 향후 미국의 경제정책이나 대외정책, 이민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공화당의 집권 이후 경기부양에 실패할 경우 빈부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반이민 정책 등과 맞물리면서 경제·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4. 트럼프 행정부 전망과 시사점

2016 미국 대선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트럼프는 기존의 미국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이단아로 정치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막말을 일삼는 등 정치적 자질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초반부터 강한 지지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본 선거에서도 준비된 대선후보라는 클린턴 후보와의 대결에서 주류 언론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와

8) 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의 전반부에서 경제정의 실천(Fight for Economic Fairness and Against Inequality)과 사회적 장벽의 철폐(Bring Americans Together and Remove Barriers to Opportunities)을 주장하였다. 2016 Democratic Party Platform.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 신자유주의로 재편된 질서에 대한 반발을 반영한다. 이는 지난 6월에 실시되었던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브렉시트 또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중하층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 때문이다.

보호무역정책과 경기부양책을 통해 미국 내 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반이민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주장은 다수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 경우 주변국들과의 통상마찰이나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인해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의 많은 부분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문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공화당의 친시장주의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오바마 케어로 대표되는 복지정책의 축소, 금융 정책에서의 규제완화, 반이민 정책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정책의 경우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더불어 외교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조정 등을 통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변국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실제 정책의 추진 과정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